

트럼프 정부 '워터보딩' 부활시키나

〈물고문〉

테러 용의자에 '물고문'

트럼프 "더한 것도 복원" 으름장
공화당 매케인 등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정권에서 테러 용의자 등에 대해 물고문의 일종인 '워터보딩'(waterboarding)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워터보딩 부활을 주장한 데 이어 안보보좌관인 부활론자를 내정하면서다.

그러자 공화당 소속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워터보딩의 부활은 안 된다며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그는 이날 한 헬리콥스 국제안보포럼 강연에서 "나는 미국 대통령이 될 해야 할지는 개의치 않겠다. 다만 물고문은 안 된다"

며 "우리는 사람들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중진 의원이, 그것도 상원 군사위원장의 입에서 이런 경고가 나온 것은 물고문 부활 가능성의 현실성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여러 차례 물고문 부활을 약속했다.

지난 2월 공화당 경선 토론에서는 "물고문보다 훨씬 더한 것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 6월 대선 캠페인에서 "눈에는 눈으로 양갈음해야 한다. 미국은 이슬람가(IS)에 잔인하고 잔혹하게 싸워야만 한다"고 주장한 뒤 "물고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그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게 아주 거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9·11 테러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원했던 심문기법인 워터보딩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트럼프가 CIA 국장에 마이크 폼페오 하원의원을 내정하면서 물고문 부활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는 워터보딩을 포함한 조지 부시 정권 시대의 심문프로그램을 강력히 옹호하는 인사다.

법무장관에 내정된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역시 테러용의자를 구바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는 것은 물론 변호인의 접근권과 목비권 차단을 주장했으며, 워터보딩 등 심문기법의 금지를 비판해온 인물이다.

다만 부시 정권 당시의 안보 관련 인사들은 트럼프 정권에서 물고문이 부활한다면 많은 군인이 불복종하거나 옷을 벗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워터보딩'을 배제할지에 대해 분명히 답하지 않았다.

펜스 당선인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물고문 부활에 대한 매케인 의원의 격렬한 반발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하이오의 유명한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진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당선인은 미국에 위협이 되는 과격한 이슬람 테러리즘에 맞서고, 무찌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것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전술과 전략이 무엇인지 적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강조했다.

또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들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워터보딩의 부활을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구체적 전략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7) 후조를 건국한 석록

석록(石勒, 274-333)의 자는 세릉으로 산서성 무향현 지방에 살고 있던 갈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흉노보다 한 급 낮은 갈족 집안이었다. 남북조시대 5호16국(五胡十六國)의 하나인 후조를 건국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이 너무 가난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14세 되는 해에 상인을 따라 낙양에 가서 장사도 하고 남의 집 소작농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의 나쁜 습관 때 변주자사 사마등의 군대에 붙잡혀 산동성 지평현의 지주인 사환에게 노예로 팔려나갔다. 진서 석록재기 편에는 당시 흉노인의 비참한 생활이 잘 묘사되어 있다. 사환의 품을 떠난 후에는 다시 반란군에 붙잡혔다가 도망쳐 나와 여덟 명의 장졸을 모아 각지를 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했다. 여덟

다. 황제가 된 이후에는 전쟁터에 나가 선비를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 수도인 양국으로 데려오도록 했다. 장빈의 건의에 따라 학교를 세워 부하 장령들의 자제를 공부시켰다. 공직 천거제도를 만들어 각지에서 천거한 인재들을 시험으로 선정한 관직을 부여했다. 그는 비록 문맹이었으나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에 의한 합리적 관리능력을 실천했다.

후조의 영토는 하북, 산서, 산둥, 허남에 걸쳐 있었고 한족과 이민족이 잡거하고 있었다. 그는 각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나 습속을 최대한 존중해 주었다. 호한(胡漢) 갈등을 없애기 위해 문신제도와 문생제주 직을 만들었다. 전자는 흉노족 후자는 한족을 임명했다. 한족이 흉노를 '호인'이라 부르는 것을 금하고 국인(國人)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흉노가 한족을 무시하는 행위를 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했다. 여덟

학자 탕평 등용...다민족 포용 정치

명이 말과 타고 다닌 관계로 팔기병(八旗兵)으로 불리었다. 이후 유량민과 탈주병을 모아 군대를 조직해 반도 활동을 벌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오랑캐 누리매'라고 불렀다고 한다.

흉노의 유연이 전한을 세우자 그 아래서 장군에 임명되었고 산동과 허남의 통치를 담당했다. 유연의 아들인 유충을 보좌해 낙양 공략에도 참여했다. 유충의 명에 따라 서진을 공격해 태위 왕연 등을 사로잡아 서진이 이렇게 몰락한 연유를 물었다. 왕연은 "절어서 벼슬할 마음이 없었고 세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그에게 존호를 칭할 것을 권하였다. 그는 "그대는 젊고 한창 때에 조정에 들어가 이름은 천하를 뒤덮고, 스스로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면서, 어찌 벼슬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천하를 파괴한 것이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유충이 죽자 사촌 유요가 유충의 아들을 죽이고 제위를 찬탈해 새 왕조인 전조(前趙)를 세웠다. 그는 이에 반발해 양국을 수도로 후조 정권을 수립했다.

그는 장군이 된 연후 천하 대사를 도모하려면 단순히 무력에만 의지해서는 안되고 학식과 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족 학자인 장빈을 참모로 영입하고 북방 한족 출신 선비들을 모아 군자영(君子營)을 세웠

포용하는 관용의 정치를 지향했다.

332년 신하 서광에게 "짐은 옛 어느 군주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폐하의 뛰어난 무예와 계략은 한 고조를 초월하며, 후세에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고 답하였다. 그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스스로를 알지 못하겠는가? 경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 대장부는 일을 행할 때 마땅히 당당하게 하고, 해와 달처럼 밝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록이 한서를 읽다(石勒讀漢書)라는 고사가 있다. 그는 일찍이 사람을 시켜 반고의 한서를 읽게 했는데 역이기가 육국(六國)의 후손을 세우라고 권하는 내용을 듣고는 놀라며 "이 방법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마침내 천하를 얻었는가"라고 물었다. 장량이 간언했다는 말을 듣고, 곧 "이 덕택일 뿐이로다"고 말했다.

그의 정치는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고 공정하게 인재를 등용하는 인정(仁政)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333년 그가 죽자 조카 석호가 인효공공이라는 말을 듣는 태자 석충을 죽이고 제위를 찬탈했다. 싸움을 즐기고 잔인한 석호의 폭정으로 후조는 석호 다음대에 멸망하고 말았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으로 받았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내년 4연임 도전

양겔라 메르켈(사진) 독일 총리가 내년 9월 총선에서 총리직 4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메르켈 총리는 20일 저녁(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당수로 있는 중도우파 기독교민주당 지도부 회합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기민당 지도부 회의에서 다음달 5일 시작되는 예선 전당대회 때 임기 2년의 기민당 당수직에도 다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에서 "끝없이 숙고했다.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그동안 공식 발표를 미루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그는 난민 위기, 시리아 내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미국 대통령선거 파급효과를 예시하며 "이번 선거(내년 9월 총선)는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르켈 총리는 모두 발언에 이은 기자들의 문답에서 "독일사회는 현재 심대하게 양극화돼 있다"고 지적하고 "기민당은 좌우로부터 모두 공격받을 것이고 특히 우파 세력의 공격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고는 독일사회의 통합과 중요심 차단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민주주의, 자유, 출신국·피부색·종교·성(性)·성적(性的) 성향 또는 정치적 입장과는 독립적인 인간 존엄성 존중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주) 푸크라안에서 20일(현지시간) 새벽 열차가 탈선, 107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부상했다.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생존자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도 열차 탈선 참사...최소 107명 사망

지난 20일(현지시간) 새벽 3시 10분께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 푸크라안에서 열차가 탈선해 최소 107명이 숨졌다. AP·AFP통신과 미 CNN 방송 등이 전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최소 150여 명이며, 이 가운데 72명 이상이 중상이라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또 아직 구조되지 못한 채 탈선된 기차 안에 갇혀 있는 승객이 많아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비드 아메드 우타르 프라데시 경찰국장은 "파손된 열차 안에 70명 이상이 갇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의료진, 국가재난 대응군(NDRF) 등이 현장에서 구조 작업 중이다. 이들은

가스 절단기, 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훼손된 열차를 뚫고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구조대원들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일부 생존자를 기차 밖으로 무사히 구조했다고 전했다.

사고 열차는 인도 동북부 파트나 시와 중부 인도르 시 사이 1360km 구간을 27시간 동안 달리는 장거리 열차 '파트나-인도르 특급'이다.

23량짜리 열차의 객차 14량이 탈선했으며, 탈선 당시 승객 대부분은 취침 중이었다. 사상자 대부분은 뒤집혀 심하게 파손된 엔진 근처 객차 2량 안에 있었다.

정확한 탈선 원인과 사고 열차에 탄 승객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레시 프라부 인도 철도부 장관은 트위터



터를 통해 "정부는 탈선 원인을 조사해 사고책임자에게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1522·3396
대표

<p>경매</p> <p>수익형 빌딩</p> <p>감정가 41억6천만, 최저가 41억6천만 서구 광천동 / 일반상업지역 / 대지 223평, 건물 571평</p>	<p>경매</p> <p>골프장</p> <p>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p>	<p>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9억 6천만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p> <p>교육 연구 시설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6억 2천만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층일반주거지역 / 아콰마를 내 위치 / 수목 식재</p> <p>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세차기 / 3기 6구</p> <p>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 부지 감정가 11억 6천만, 최저가 11억 6천만 서구 쌍촌동 / 대지 457평 / 2층일반주거지역 / 8m 도로점 / 주위 다가구주택 흔재 지역</p> <p>고급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p>
<p>매매</p> <p>오피스텔</p> <p>매매가 42억 조선대학교 공대입구 / 10층 / 신축 / 대지 183평, 건물 600평</p>	<p>매매</p> <p>상가건물</p> <p>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p>	<p>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p> <p>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p> <p>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p> <p>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p> <p>계곡 산장 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p>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